

대여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치수분류에 관한 연구

박희영 · 이효진*

전북대학교 가정학과 의류학전공 석사과정 · 전북대학교 의류학전공 교수*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식 예복으로 서양식 웨딩드레스를 주로 착용하고 예식 이후의 단계인 폐백절차에서는 한복과 활옷 등을 입는 것이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서양식 웨딩드레스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등의 국가들에서도 각국의 전통적인 결혼방식과 서양문화의 결혼방식이 공존하기 때문에 드레스 구입에 있어서 '맞춤'의 개념이 아닌 '대여'의 개념이 보편화되어 있다. 또한 서양의 파티 문화가 보편화 되어있지 않은 문화적 환경에서 드레스는 결혼식에 단 한 번 입을 수 있는 특수복으로써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문에 의한 맞춤의 형식이 아닌 대여방법으로 착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대여형태는 예식장내의 드레스 샵이나 개인 웨딩 샵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레스들 중에서 대여한 후 예식 후에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드레스를 대여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대여점에서 사업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드레스들 중에 소비자가 착용을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드레스를 기본적인 가봉을 통해 대여해주는 '일반대여'이다. 둘째는 소비자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을 오더 메이드(oder made) 형식으로 주문하고 전문점에서 유사하거나 똑같은 디자인을 사입이나 주문제작을 통해 대여하는 '맞춤대여'이다.

기성복에 비해 웨딩드레스는 수요에 있어 한계가 있고 특수복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제작하는데 있어 경제적인 지출이 많기 때문에 동일한 디자인을 치수별로 여러 벌을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웨딩드레스 대여전문점의 경우 기본 허리 치수를 중심으로 몇 인치씩 가감을 가능하게 하는 수공적인 치수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웨딩드레스 대여 전

문점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기본 웨딩드레스 치수의 조정 폭이 어느 정도인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 또한 일반 여성복과는 달리 웨딩드레스는 여유분량이 없이 피트(fit)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레이딩(grading)으로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대중화되어 있는 네크라인과 소매의 디자인에 따라서도 치수의 조정 폭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특수복으로서의 측면에서 웨딩드레스의 규격화된 치수 분류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실정이다. 웨딩드레스 치수는 주로 상반신과 그에 따른 디자인에 크게 좌우되며 상반신의 치수에 따라 디자인 범위도 한계가 있다. 특히 상반신 치수 분류는 웨딩드레스만의 고유 특성상 각 치수 분류 안에서도 디자인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이에 대중화된 기성복 치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웨딩드레스 제조 상위 업체 5곳의 상반신 패턴을 분석하여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치수 분류를 체계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치수 분류에 따라 한계가 지어지는 상반신 디자인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5년 동안의 웨딩드레스 디자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여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치수에 따른 스커트의 적정길이의 제시도 가능하리라 보며, 또한 대중에게 선호되는 디자인별 치수의 조정 폭을 분석함으로써 치수별 디자인 제시의 기본 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체계적인 치수구분으로부터 소비자는 착용 시에 안락감을 느낄 수 있고 전문점에서는 드레스 관리와 주문방식에 있어 편리함을 누리며, 제조업체에게는 과학적인 주문체계 제공으로 인한 판매율 증가와 작업의 효율성을 가져다 줄 수 있음에 그 의미를 두었다.